

# 지역 농특산물 공급 · 농가 소득 향상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 비축 · 공급센터 구축 시동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을 위한 농산물 수급 ·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원료비축 · 공급센터 설치에 나선다.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 · 공급센터 설치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월까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당초 80여억원을 투입해 거점공급센터를 구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추가 요구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입주 업체들이 요구사항을 반영해 원료 비축시설, 냉장 · 냉동 시설 마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이 센터 건립과 사업 전담 인력 확보, 마케팅을 위한 운영비를 확보하는 한편 원료농산물 공급 수발주 시스템 구축, 공급계약 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생산기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생산농가 교육을 통해 식품클러스터의 성장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공급 농가 소득 향상 등에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유희환 미래농정국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로 연계시켜 농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유희환 미래농정국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로 연계시켜 농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일 군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명작스페셜 I - 차이코프스키'

군산시립교향악단(단장 한준수 부시장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명작스페셜 I - 차이코프스키'라는 주제로 제12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정현의 지휘 아래 '피아노 협주곡 1번', '교향곡 4번' 등의 차이코프스키의 주옥같은 명곡들을 만날 수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스비르킨을 초청해 협연무대로 펼쳐질 예정이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러시아적 정서와 투명감이 흐르는 가운데 아름답고 로맨틱한 선율이 세련된 감각으로 처리돼 있

으며, 중후하고 깊은 선과 색채적인 관현악법이 매력적인 한껏 자아내는 곡이다.

2부에서 선보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은 차이코프스키가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향한 열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그의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했을 때 마음의 한을 그대로 담아낸 곡곡들을 만날 수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스비르킨을 초청해 협연무대로 펼쳐질 예정이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러시아적 정서와 투명감이 흐르는 가운데 아름답고 로맨틱한 선율이 세련된 감각으로 처리돼 있

/군산=김판곤기자

# "1박2일 '머무는 관광 정책' 집중 육성"

##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시대 트렌드 맞는 미래형 관광정책 발표

강임준 더불어 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별보)가 20일 군산시 관광정책을 발표했다.



관광객 숫자에 연연한 정책만 추진하다 보니 근대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기존 특정 관광지 중심의 전통적 관광자원 전략에서 벗어나 시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미래형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우선 관 주도형 관광정책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개발중심의 관광인프라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관광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협동조합 · 소상공인 등 시민주도형 관광산업분야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산물과 숙박업, 음식업, 공연문화 등 시민주도형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함으로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시설관과 인근 주변

만 둘러보고 떠나는 현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문학 컨텐츠를 육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지금까지 시도 되지 않은 새로운 관광정책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인문학 관광은 언뜻 받아들여지면, 인문학이 무슨 관광정책이냐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특정지역의 시설관람 위주의 관광정책은 1~2년 오고 가면 다시 찾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인문학 콘서트, 스타 강사의 초청강좌, 국내외 세미나 학술대회 등 다양한 인문학 컨텐츠를 육성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여행의 참 뜻인 의미 있는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물론, 매년 새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광객을 군산으로 유치해 관광도시 군산을 만드는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군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음식관광사업에 대한 육성 정책도 밝혔다.

▲군산시 먹거리 상권 지원단 구

성 지원 ▲식품개발 산학협력단 구성 먹거리 신상품 개발 지원 ▲음식관광부어 프로그램을 개발 등을 통해 음식관광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발굴 ·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업체에 한정된 음식관광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 음식관광부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예비후보는 군산이 관광정책으로 지역산권이 살기 위해서는 '머무는 관광 정책'이 가장 절실하다면서 1박2일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1박 관광객 대중교통과 공공관광시설 무료 관람 전용카드 제공 ▲비수기 평일 1박 관광객 숙박비 최소 20~30% 지역화폐로 환급(제공된 지역화폐는 다시 군산 상권에서 쓰여 상가에도 도움) ▲군산시 개발 1박 2일 프로그램 참여 관광객 전원 지역 특산물 제공 ▲시민 주도 1박 2일 프로그램 관광상품으로 적극 지원 · 육성 등이다.

/군산=김판곤기자

## 생묘식품 투자협약 체결로 익산시 기업유치 물고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0일 박진선 생묘식품 대표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위원장 조효일 전북도농식품산업과장,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묘식품(주)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오송 R&D연구센터, 서울 분사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유치활동을 펼쳐 투자협약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향후 생묘식품(주)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게 되면 (주)생묘식품, 순수분(주), 풀무원식품(주) 등과 함께 식품산업 혁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500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생묘식품(주)은 전통발효 장류제조에서 최첨단 바이오 발효공법을 활용해 획기적인 기술개선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개발의 시작을 익산에서 펼칠 포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원센터 내에 국내 최초로 건립중인 소스산업화센터와 연계해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발효 및 소스 산업분야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100%콩으로 만든 자연발효 요리엔선스 연두로 미국, 스페인 등 글로벌 식품시장에도 발을 넓혀 '우리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하는 비전'에 맞춰 우리 맛의 중심인 발효와 장(醬), 더 나아가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대, 2018학년도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

군산대학교가 지난 19일 대학 아카데미홀에서 2018학년도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을 열고 34대 군산대학교 총학생회의 합한 출범을 선언했다.

출범식은 이성수 교무처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재학생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뜻깊게 진행되었다.

한 해 동안 학생회 활동이 무사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기원문 낭독에 이어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각 대표대학 별 기원의식이 있었다.

이어 장재양 총학생회장(환경공학과 4

학년)의 출범선언이 이어졌고, 각 동아리별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등 흥겨운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성미 학생 · 취업지원처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학우가 먼저라는 34대 총학의 모토처럼 서로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모두가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게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재양 총학생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학우들과 소통하여 공약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토양개량증진 친환경 퇴비지원

익산시는 토양개량증진 및 지력증진을 위해 조경수 재배 20입가에 친환경 조경용퇴비 1.916포(20kg)를 조기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내 조경수재배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친환경퇴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처음 시비지원 1천만원을 확보해 친환경 퇴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지난 1월 조경수 재배 입가를 대

상으로 재배규모 및 소요량을 조사했고 3월에는 최종 20입가를 선정 조경용퇴비 1.916포를 배정했다.

이로써 조경수 재배 임업인이 선호하는 친환경 조경용퇴비를 포대당 가격 5,800원 중 5,220원(90%)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입가에서는 580원(10%)만 부담함으로써 임업 경영비를 덜어 줄 것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컨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 · 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